

“올해 집값 내린다” 한목소리... ‘규제완화 효과’ 기대치 낮아

올해 전국 주택 매매량 전년 대비 절반 미분양 6만 육박... “6만2000가구 위험선”
전국 아파트 값 역대 최장 기간 하락세
전문가들 “규제완화에 한계... 대세 하락”

“부동산이머 인테리어, 이삿짐 업체, 은행 대출지원 등 안 힘든 곳이 없어요. 옆 동네 부동산은 대출받아서 버티기도 하고 설거지 알바를 하러 나가기도 한다네요. 한 번도 이렇게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엔 진짜 상황이 안 좋습니다.”(경기 광명시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2022년 국내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거래절벽과 미분양의 여파로 혼돈 그 자체였다. 주택 매수수요가 급감하면서 전국 집값은 결국 ‘대세 하락’으로 진입했다. 정부는 새해부터 대규모 규제 완화 정책으로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금리 등의 여파로 올해도 거래 회복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말 기준 전국 주택 매매량은 48만 187건으로 전년 동기(96만1397건) 대비 절반이 넘는 50.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9만5877건)과 지방(28만9600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8.4%, 42.5% 줄었고, 서울(5만3163건)은 55.9%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28만359건)가 56.1%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19만9828건)은 38.1% 줄었다.

주택 거래시장 뿐만 아니라 분양시장도 공동 얼어붙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802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4만7217가구에 비하면 한 달만에 22.9%(1만810가구) 급증한 것이다.

올해 1월 2만가구를 넘어선 미분양 주택은 7월 3만가구를 돌파했고 9월에는 4만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7110가구로 전월보다 0.5%(337가구) 증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한 포럼에서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6만2000가구를 위험선으로 보는데, 매달 1만 가구씩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며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한 만큼 규제 완화 속도를 더 높여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의 추세로 보면 12월 기준 미분양 물량은 6만 2000가구를 바로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거래절벽과 미분양 사태로 인해 전국 아파트값은 역대 최장기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76% 하락하면서 지난 5월 둘째 주 이후 34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계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사상 최장기간이다.

서울에서는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지만 강남 일대도 부동산 하락세를 피하지는 못했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전용면적 84㎡ 입주권이 최고 거래가(29억5000만원)보다 10억원 가까이 떨어진 20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3일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대출 보증 상한 12억원 폐지 ▲투기과열지구 9억원 등 특별공급 배정기준 폐지 ▲청약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비율 폐지 등 미분양과 거래절벽 해소에 방점을 찍은 대책을 내놓았다. 또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곳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에 당장 거래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 심해져서 실거래가가 한 번 뜨고 나면 그 뒤로 오시는 손님들은 다 그 금액만 찾기 때문에 금대 아니면 거래가 힘들다”며 “금리 인상의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규제지역이 해제되고 하더라도 당장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광명시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중개업을 20~30년하신 분들이 말씀하시

기를 2012년 당시 크게 경제위기가 왔을 때도 이렇게 (거래절벽이) 길지는 않았는데 1년 넘게 이어지는 것은 진짜 처음이라고 한다”며 “부동산이머 인테리어, 이삿짐업체, 은행 대출지원 등 안 힘든 곳이 없다. 옆 동네 부동산은 대출받아서 버티기도 하고 설거지 알바를 하러 나가기도 한다. 한 번도 이렇게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엔 진짜 상황이 안 좋다”고 말했다.

전문가들과 주요 연구기관들 역시 올해 전국 부동산 시장은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대세 하락’에 일제히 한 표를 던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3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실거래가 기준)이 8.5%, 수도권 아파트값은 13.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산업연구원 역시 올해 전국 주택 가격 변동률을 2.5%로 전망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3~4%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불확실하다는 외부요인을 규제완화 같은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렵다”며 “이 때문에 규제 완화 기대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7가지 조리기능 담았다...쿠쿠, ‘멀티광파오븐’ 1월 출시

전자레인지·에어프라이어·그릴·오븐 기능 등



쿠쿠는 전자레인지 기능을 포함해 총 7가지 조리 기능을 한 번에 담은 ‘멀티광파오븐(모델명:CMW-CO3010D)’을 1월 중에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쿠쿠 멀티광파오븐은 제품 하나로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오븐, 그릴, 발효, 건조, 해동이 모두 가능하다. 특히 쿠쿠만의 트리플열원

을 활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다양한 요리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트리플열원은 전자레인지에서 전자파를 만들어내는 ‘마그네트론’과 빠른 가열속도를 자랑하는 ‘광파 그릴 히터’, 에어프라이어에 들어 있는 ‘열풍히터’를 함께 작동하는 방식이다. 열원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조리 모드를 구현할

수 있다.

전자레인지 기능은 편의점 전자레인지와 같은 1000W의 출력을 발휘한다. 또 100%, 80%, 50%, 30%, 10% 5단계로 출력을 조절할 수 있다. 컨벡션오븐 기능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온도의 열풍을 불어 염분과 칼로리는 낮추고 수분과 영양소는 유지할 수 있다.

멀티광파오븐에는 최적의 자동 조리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다. 제품의 조리실 상단에 부착된 QR 코드를 인식하면 홈페이지 7종과 요리 9종 등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16가지의 레시피를 제공한다.

냉동 음식을 무게와 시간 설정을 통해 빠르게 해동하는 기능, 40도의 온도 제어 기능으로 빵과 요거트 등을 발효하는 기능이 있다. 70도의 온도 제어 기능으로 과일찹이나 고구마말랭이, 오징어, 팻 간식 등 건조식품 제조도 가능하다.

제품 내부는 모두 스테인리스로 청소가 용이하다. 조리가 끝난 뒤에는 5분간 탈취 기능을 적용해 잔여 음식물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이후에는 스팀 청소 기능을 통해 내부를 뜨거운 수증기로 불려 제거되지 않은 찌든 때나 음식 찌꺼기를 추후 손쉽게 제거가 가능하다.

멀티광파오븐 가용 용량은 20ℓ다. 쿠쿠 공식 홈페이지를 포함한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서선욱기자

골프존, 새해맞이 ‘경품 이벤트’ 실시



2023년 계묘년 흑토끼의 해를 맞아 다양한 경품 지급 이벤트가 진행된다.

골프존은 총 상금 3000만원 상당의 ‘흑토끼 복을 잡아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벤트는 오는 29일까지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총 두 가지로 마련됐다. 첫 번째 이벤트는 행운의 풍선 경품 지급 이벤트다. 골프존이 선정한 23개의 이벤트CC 1라운드 18홀 중 PAR5 코스에서 게임 화면에 연출되는 행운의 풍선 2개를 맞히면 100% 경품을 랜덤

지급한다.

특히 설 연휴기간인 1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특별 혜택을 더한 황금볼이 등장한다. 설 연휴기간 추첨을 통해 골프존카드 이용권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두 번째 이벤트는 상금 지급 이벤트다. 이는 첫 번째 경품 지급 이벤트에 1회 이상 성공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골프존이 직접 선정한 23개의 이벤트CC를 모두 플레이하면 상금 1000만 원을 참여 회원수에 맞춰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천승희 골프존 GS마케팅팀장 천승희 프로는 “지난해에도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골프존 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새해 이벤트를 마련하게 됐다”며 “올 한 해도 초보부터 아마추어까지 모든 골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롭고 재미있는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뉴시스

수협쇼핑, 굴비·전복 등 설 성수품 최대 68% 할인

매주 2만원 할인쿠폰 지급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수협쇼핑은 오는 23일 ‘2023 설 선물대전’을 열고 전복과 굴비 등 설 성수품을 최대 68% 할인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할인 지원 품목은 굴비, 고등어, 갈치, 전복, 옥돔, 멸치, 오징어, 김 등 대중 수산물과 명절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꿀, 광어·우럭회 등 제철수산물이다.

수협쇼핑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행사 기간 동안 매주 최대 20%(한도 2만원) 할인 쿠폰을 지원한다. 이번 설 명절에는 기존보다 할인 한도가 1만 원 늘었다. 여기에 수협쇼핑 자체 추가 할인을 더하면 최대 68%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최대 할인폭을 적용하는 품목은 명절 선물 인기 수산물인 완도 활전복(2kg, 24~28미)이다. 또 옥돔 세트(2kg) 55%, 영광 굴비(1.1kg, 10미) 49%, 제주산 갈치(550g, 3팩) 37% 등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오는 12일까지 사전구매를 신청하면 이들 품목을 정해진 날짜에 안전하게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수협쇼핑은 올해부터 수산물 외에도 농축산물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자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설 선물용 농축산물을 20% 할인 적용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증정한다.

할인대상은 설 명절 수요가 높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1등급 이하),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밥, 대추를 기본으로 매주 딸기, 양파, 감자, 시금치 등의 제철 과일과 채소류가 포함

된다.

수협쇼핑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고물가 및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 이번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는 수협쇼핑에서 저렴하게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모나미 ‘라이브칼라 DIY 세트 럭키’

모나미는 나만의 취향에 따라 펜 타입과 잉크 색상을 자유롭게 조합하는 ‘라이브칼라 DIY 세트 럭키’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라이브칼라는 노트 필기, 스케치 및 수채화 드로잉, 컬러링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모나미의 대표 수성펜이다.

신제품은 행운과 축하의 의미를 담아 네잎 클로버 콘셉트로 제작했다. 라이브칼라 리필 3종 각각 5개와 메모지, 커넥터 5종, 파우치로 구성했다.

패키지에는 라이브칼라 동근납(1.2mm), 사각납(0.5~2.5mm), 파인납(0.4mm) 리필 3종을 모두 담았다. 네잎클로버 색상에서 영감을 얻어 초록, 파랑, 노랑을 중심으로 잉크 색상을 구성했다. ▲페일멜론 ▲슈가민트 ▲아이스크림블루



▲아쿠아아이스 ▲밀키레몬 등 10가지다.

다양한 색상의 라이브칼라를 이용해 매일 다른 색상, 펜팁, 커넥터를 조합하며 나만의 펜을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제품은 공식 온라인쇼핑몰 모나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슬비기자

농협, 내달 ‘한우 반값 할인’ 진행

오는 13일부터 ‘설맞이 한우 할인행사’ 진행

농협 경제지주 축산경제는 한우 도소매 가격 연동제를 강화하고 소비촉진 할인행사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농협은 오는 13일부터 한우자조금과 공동으로 ‘설맞이 한우 할인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월에는 전국 300여 개 판매장에서 불고기와 국거리를 최대 50% 할인해 판매하는 ‘한우

반값 할인행사’와 암소 할인 판매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협은 현재 전국 130여 개 농·축협 및 하나로유통 통합공급 매장에 인화된 도매 가격을 적용해 유통하고 있다. 또 축산물을 취급하는 전국 1500여 개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권장 판매가격을 주기적으로 제시해 도소매 가격 연동제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